

안보공백·예산 확보 우려 속 이전 추진...軍은 속앓이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문제점

민주·정의당 "제왕적 형태" 반발

국힘·인수위 내부서도 반대 의견

국방부 최소 5000억원 소요 보고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 내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은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낱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러한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없다.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음을 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도 이날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직무실이 광화문이나, 용산이나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물론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직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직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끔찍 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가 함참으로 가는 이전 비용은 정부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분산 배치에 드는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당초 청사 이전에만 최소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순수 이사비용 500억 원 외에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1순위 국정 과제는 코로나 대책

50조 코로나 추경 드라이브 예고

본격 출항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순위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 될 전망이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산업·일자리 전반을 초토화시킨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는 인수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수위가 내놓을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치를 가늠할 첫번째 시험대인 셈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0일 자신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인선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17일 인수위 첫 회의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 의료 문제 등도 세심히 다룰 것"이라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의 후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을 내정한 것도 '코로나 추경' 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르는 스테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불황) 문제도 코로나대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7일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테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말로 코앞에 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원·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된 기준의 거리두기 정책도 빅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일각에선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 대책이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 관련 오늘 회동

외부 인사 공관위원장 의견일치

양향자 의원 등 복당 논의 주목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민주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은 서울에서 모여 6·1 지방선거 준비 절차를 점검하고, 공천 과정 등 지방선거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특히 공관위원회를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한 국회의원은 "지방선거를 혁신적이고,

더욱 공정하게 준비하기 위해 공관위 위원장을 외부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주당이 광주에서부터 혁신을 통해 지방선거를 모범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 위원장 후보로는 교수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여성이 50% 이상 참여하고 당 외부 인사가 30% 이상 포함시키는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관위 위원장 선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동을 통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복당 문제에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양 의원의 복당은 송영길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에서 부

정당 입장이 있어 미뤄졌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대선 이후 양 의원의 복당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작업 중인 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활동가 박지현씨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성비위 아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추행 2차 가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논란이 제기돼 탈당한 양 의원의 복당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또한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당을 나온 양 의원의 '징계회피 탈당' 적용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문 정부 5년 백서' 발간 온라인 공개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백서에서 50대 핵심과제를 추려 그 추진결과를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곁들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추진현황,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개선, 코로나19 대응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또 일반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백서에 담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백서가 공개되는 웹페이지에서는 대표 정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잘 된 정책인지를 국민들이 투

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 그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백서"라며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누구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라며 "인쇄물 백서나 영상백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미 호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군 등VIP접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